

제6·7차 교육과정별 초등학교 지역교과서의 지리영역 비교연구

- 사회과 탐구 「아름다운 제주도」(4-1)를 중심으로 -

손 명 철* · 오 동 현**

목 차

- I. 머리말
- II. 지역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배경
- III. 제6·7차 지역교과서의 구성 체계 비교·분석
- IV. 제6·7차 지역교과서의 지리 내용 비교·분석
- V. 새로운 지역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언
- VI. 요약 및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지역교과서의 개발 배경이 된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리를 검토하고, 초등사회과의 지역화 교재 중 『아름다운 제주도』(4-1)의 구성 체계와 지리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란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결정 권한을 지역, 즉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이 가진다는 적극적 의미의 지역화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는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라는 소극적 의미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제7차 교육과정은 6차에 비해 '인간과 사회' 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반면 '인간과 공간' 및 '인간과 시간' 영역의 비중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지리 영역 내에서는 자연환경과 분석기법 내용들은 증가한 반면 인문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교과서 개발에서는 이들 영역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시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들이 많이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지리전공) 부교수

** 남제주군 위미초등학교 교사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지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탐구문제는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가능하면 범교과적 통합을 지향하며, 학생 스스로 지적 흥미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교육과정의 지역화, 지역교과서, 인간과 공간, 지리도해력(geographicacy)

I. 머리말

1. 연구배경과 목적

1992년에 개정된 제6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육과정 결정의 지역화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결정의 지역화는 중앙이 가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역에 이관함으로써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 결정의 지역화 취지는 강화되고 있는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을 구성 방침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청에 지역교과서 개발의 욕을 불러 일으켰고, 지역 자료의 교육 자료화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 학습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지역화를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미흡한 채로 현장 교육에 투입되는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학습지도의 기본 전략을 종전의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에서 지방분권적 교육과정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례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안을 각 지방 교육담당자가 지역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자율권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과 4학년 1학기 과정을 편성해야 할 책무가 주어졌고, 산하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는 3학년 1, 2학기 과정에 알맞은 지역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처럼 교육과정 결정의 지역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는 지역 교육과정 편성 방법과 지역 교재의 재구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더불어 단위 교육청별로 지역 교과서도 새롭게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는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학교에서 그 실정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 하에 교육과정의 개별화 혹은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강조하

고 있다. 이는 곧 학생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교육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교육과정 철학 및 운영의 변화 추이에 비춰볼 때 해당 지역의 성격에 적실한 지역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 실정에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급한 교육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지역 교과서들이 원래 의도한 목적에 충실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지역 교과서의 개발 배경이 된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리를 검토하고, 초등사회과의 지역화 교재 중 <사회과 탐구> 『아름다운 제주도』(4-1)의 구성 체계와 지리 내용 요소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역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동향과 방법

제6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초등 사회과 교육의 지역화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한 지역화 교재와 실제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화 수업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거나(김용국 1994),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지역화 학습에 대한 의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화 운영을 위한 절차와 내용, 학습 방법 및 평가 관련 요소들을 고찰하기도 하였다(김재광 1995). 구체적인 지역을 사례로 한 경험적인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충북 지역 교과서의 내용 조직과 구성상의 특징을 고찰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최용원 1997), 경기도 의왕시를 중심으로 지역 단원 재구성을 위한 지역화 유형을 파악하고 지역화 수업안을 현장 수업에 직접 적용시켜 수업 모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지역화 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용한 1997),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의 초등학교 3학년 1, 2학기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 현상 및 자료 활용에 적합한 지역화 유형 및 지역화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최덕기 1998)도 이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의 지역 교과서와 관련해서도 몇 편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두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집필된 지역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교과서가 지향해야 할 서술 준거를 제시하면서 질적 접근법을 통해 내용을 분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오성배 1998), 전국 15개 시·도의 지역교과서 내용을 학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교과서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선정·조직되었는가를 분석하기도 하였다(고신태 1998).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지역교과서의 각종 자료, 즉 지도, 도표, 삽화 및 사진 자료를 검토하여 과연 초등학교 수준에 적절한 자료활용 및 구성체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거나(정광중 1997), 15개 교육청별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목표의 수, 수업목표 진술방식, 수업목표의 내용 차원과 행동 차원을 분석한 연구(고용찬 1998) 등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교육과정 시기에 편찬된 지역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대상으로 내용 전반을 분석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6차 및 7차 교육과정에 따

른 지역교과서를 상호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자의 전공 분야인 지리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심층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 지역화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선행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 그리고 석·박사학위논문 등이 집중적인 검토 대상이 되었다. 구체적인 교과서 분석에는 제6차 및 7차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된 <사회과 탐구> 『아름다운 제주도』(4-1) 1999년판과 2001년판을 대상으로 하여 2개 교과서의 내용중 지리 영역에 초점을 맞춰 비교·분석하였다.

II. 지역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의 배경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지역화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제5차 교육과정시기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사회과 각 단원에 분산되어 부분적으로 학습되던 지역 관련 내용이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 이르러 독립된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되고 지역 학습이 강조되면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특히 사회교과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교과로 간주되고 있는데, 사회교과에서 지역화가 강조되는 배경은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후기 산업 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사회가 다원화되고 지방화의 흐름과 더불어 인구, 산업, 자본, 기술 등의 지나친 중앙집중으로부터 분산과 분권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행정적 의도가 그것이다. 지역주의 개념의 등장을 통해서도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지역화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을 간파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주고 지방의 역량을 육성하여 지역적 독자성을 살리는 적극적 수단이며, 정치·행정·문화적 역량의 균형있는 재분배를 위한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남상준 1999).

둘째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국토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초래함에 따라 수도권 및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 안고 있는 상대적인 낙후성을 시정해 보려는 경제적 측면의 고려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전통문화를 지방을 중심으로 되살려 보려는 지방문화 발전의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인적 삶의 다양성, 지역적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 풍토 속에서 자라고 있는 후손들로 하여금 각자의 지역에서 물려받은 문화를 소중하게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발을 일구어 주는 일일 것이다(김용만 1986).

네째 교육적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중앙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기본 학습자료인 교과서를

편찬·공급하는 체제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일선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피동성, 소극성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바로 그것이다.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교육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집중형 교육체제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하에서 길러지는 인간은 한마디로 '익명의 평균적인 인간'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탈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맞으면서 중앙집중식 교육체제에서 양성되는 익명의 평균적 인간으로는 더 이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싹트면서 기존의 교육체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리는 보다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한편 세계의 교육추세를 살펴볼 때, 학교 교과목 중 수학, 과학, 기술과 같은 자연계열 과목들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목적과 목표, 내용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지리, 국어와 같은 과목은 특정 시대와 장소라는 시·공간적 맥락속에서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고 학습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라는 주제하에 사회과 지리영역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2. 지역화의 개념과 필요성

포괄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화'란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 획일성을 탈피하여 교육과정을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으로 적합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인정옥 1988). 환언하면 지역화란 중앙집중형 교육과정 개발체제하에서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상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지역사회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과정의 지역화'라 함은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결정 권한을 지역, 즉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혹은 학교 현장에서 담당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지역화와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는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라는 소극적 의미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장동환 1996). 이처럼 교육과정의 지역화란 지역사회 학교운동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중앙집중의 형태로 결정되고 편성·운영되는 교육과정을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역적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과의 학습 대상이 되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지역에서 찾아 교재화할 뿐 아니라 학교의 여건, 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가르칠 내용을 선정,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논점에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례로 남상준(1999)은 세계 혹은 국가라는 전체 사회는 하위 단위인 국가 혹은 지방(지역)이라는 건강한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산업사회를 지배하던 획일화, 표준화, 규격화의 틀을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미래 사회에

서는 다원성, 다양성을 요구할 것이며, 다원성의 근원은 개인의 차이와 함께 지역적 차이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지역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인정옥(1988)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국가 수준의 교육내용과 사회적 요구와의 갈등을 수렴하고, 교육내용과 사회현상과의 부적합성을 해결하며,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여러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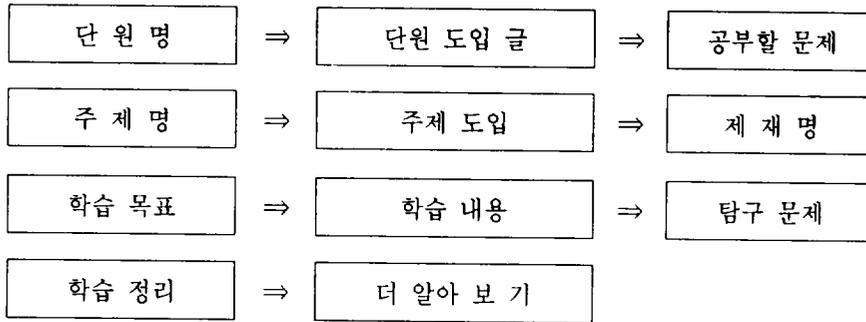
III. 제6·7차 지역교과서의 구성 체계 비교·분석

1. 영역별 단원 수와 단원 전개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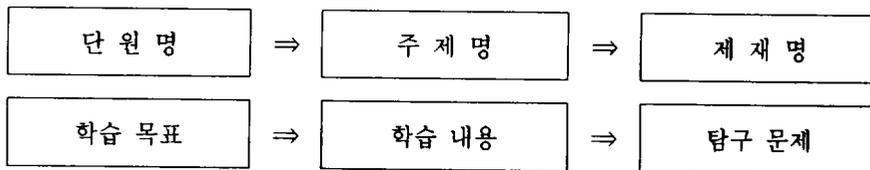
전체적인 단원 수와 주제 수를 비교해보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4단원 8주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3단원 8주제로 구성되었다. 6차에 비해 7차에서는 단원 수가 1개 줄었으나 주제 수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7차에서 3개 단원으로 구성된 것은 전국의 모든 지역교과서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영역별 구성 양상을 보면 6차에서는 단원별로 지리, 역사, 경제, 일반사회 영역의 순서로 4분법적 편성체제를 보이고 있으나, 7차에서는 지리·역사, 경제, 일반사회 영역의 순서로 3분법 혹은 2분법적 체제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영역별 편성 상의 변화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상에 명시된 사회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일반사회 즉 '인간과 사회' 영역에 편중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는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개념과 원리, 사회 제도와 기능, 사회 문제와 가치, 그리고 연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선정, 조직하여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한다"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 체계표 상에도 사회과의 영역을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3영역이 균형있게 편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1997).

사회과 교과서의 단원 내용 조직은 핵심적인 지도 요소를 선정하여 체계화하고, 관련 사례 및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거나 문제 장면을 구성하여 적절한 탐구 과정과 연계시키고 있으며, 교수-학습이 용이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제6차 및 7차 지역교과서의 단원 전개 체제는 아래와 같다.



<그림 1>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지역교과서의 단원 전개 체제



<그림 1>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지역교과서의 단원 전개 체제

앞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6차에 비해 7차에서는 단원 전개 과정이 대폭 생략되었다. 6차에 제시되었던 <단원 도입글>, <공부할 문제>, <주제 도입>, <학습 정리>, <더 알아 보기>가 생략되어 모두 11단계에서 6단계로 단순화되었다. 이는 단원 전개 과정이 지나치게 세분되고 복잡함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이 학습 활동의 흐름을 보다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리 영역의 양적 구성

전체적으로 교과서 분량은 176쪽에서 147쪽으로 약 20%가량 감소하였다. 이는 7차 교육과정 입안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목적하에 모든 교과 내용을 6차에 비하여 약 30% 정도 줄인다는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 분량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학생들에게 좀더 가치있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흥미있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교과서 분량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교육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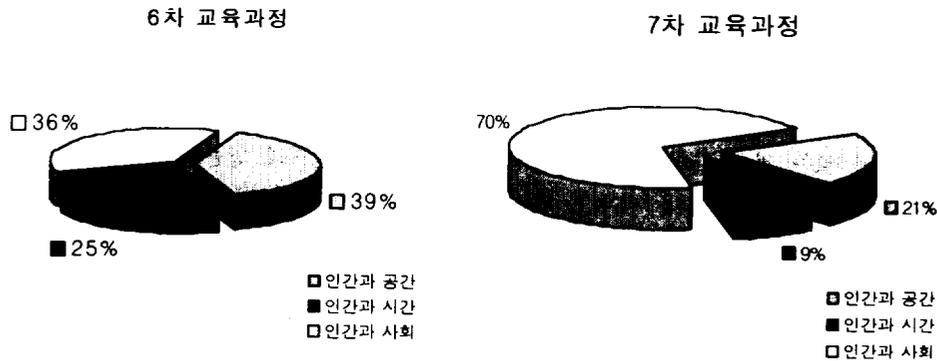
영역별 내용 비중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고신탉 1998), 6차 교과서의 경우 지리 35.4%, 역사 22.5%, 경제 13.6%, 일반사회 28.5%로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역 구분방식을 7차 사회과 교육과정 체제에 맞춰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과 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 영역은 일반적으로 일반사회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 1〉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내용 체계(4학년)

교육과정 영역	제7차 교육과정	
	대 주 제	소 주 제
인간과 공간	● 우리 지역의 모습	· 지역의 자연환경 · 지역의 인문환경 · 계절과 생활모습의 관계 ·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
	● 지역의 지도 그리기	· 지도의 요소와 표현방법 · 지역 생활 모습의 지도화
인간과 시간	● 옛 도읍지와 나라들	· 연표와 역사 지도 · 우리 나라 이름의 변천 · 옛 도읍지의 문화유산
	● 박물관과 문화재	· 박물관의 기능 · 문화재의 뜻과 중요성
인간과 사회	● 지역의 자원과 생산 활동	· 자원과 생산의 관계 · 공공재와 주민 경제 · 지역 경제의 해외 진출
	● 물자의 유통과 상호 의존	· 생산의 분업화와 직업 분화 · 시장의 뜻 · 교환, 유통, 화폐 · 경제적 상호 의존
	● 지방 자치와 주민 생활	· 지방자치 단체 · 선거 · 우리 지역의 상징
	● 지역 사회의 문제와 해결	· 지역 사회 문제 · 지역 사회 문제 해결
	● 우리 지역의 앞날	· 조사 방법 · 지역의 미래 모습 설계
	● 다양해지는 가정 생활	· 가정의 여러 형태 · 바람직한 가정 생활
	● 취미와 여가 생활	· 취미·여가 생활의 종류 · 여가 생활의 변화
	● 가정의 살림살이	· 경제적 선택과 결정 · 생산과 가계 소득 · 합리적 소비

대주제를 기준으로 할 때 '인간과 공간' 및 '인간과 시간' 영역이 각각 2개씩인데 반해 '인간

과 사회' 영역은 무려 8개에 이른다. 소주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각 6개, 5개, 21개로 역시 특정 영역 즉 '인간과 사회' 영역에 매우 편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영역별 실제 교과서 쪽수로 환산하여 6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6차 및 7차 지역교과서의 영역별 내용 비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은 6차에 비해 '인간과 사회' 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반면 '인간과 공간' 및 '인간과 시간' 영역의 비중은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체계에서 '인간과 사회' 영역의 대주제 수가 다른 두 영역에 비해 4배나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영역에 내용이 편중된 지역교과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지역교과서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고, 지역의 특성은 곧 시간적, 장소적 맥락을 통해 살펴볼 때 그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 교육과정 개편시에는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및 '인간과 사회'라는 3영역이 내용 비중 면에서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제6·7차 지역교과서의 지리 내용 비교·분석

1. 지리영역의 하위 분야별 구성 비율

본 연구에서는 하게트(Haggett, P. 1983)가 지리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내적 구조를 제시한 분류 틀을 참조하여 제6차 및 7차 지역교과서 지리 영역을 자연환경, 인문환경, 분석기법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구성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2〉 지리 영역의 하위 분야별 구성 비율

개 념 \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쪽 수	비 율(%)	쪽 수	비 율(%)
자연 환경	19	33.9	14	50.0
인문 환경	19	33.9	3	10.7
분석 기법	18	32.2	11	39.3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분석기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행 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자연환경과 분석 기법 내용들은 증가한 반면 인문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폭 감소하였다. 인문환경 내용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마도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리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는 인문지리 내용중 상당수가 일반사회 영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시기에 와서 지리 영역 전체적으로 내용 비중이 감소한 것 못지 않게 지리 영역 내에서도 인문지리 분야가 크게 감소한 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리는 수업시간을 통해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두루 균형 있게 다룰 때 지리교육의 목표로 상정되는 지리적 안목과 지리적 상상력을 제대로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리영역의 학습자료

학습자료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밀도 있는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인지발달 단계 면에서 아직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중심의 설명식 수업보다는 사진이나 지도, 그림 등 생생한 그래픽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수업목표를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자료들 중 사진, 지도, 도표, 그리고 삽화를 중심으로 제6차와 7차 교육과정 시기별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사진은 아동들에게 흥미와 자극을 불러일으키고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학습 내용의 진실성을 전해 줄 수 있는 시각자료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사진 자료는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모두 60개가 제시되었으나 7차에는 43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리 영역의 구성비가 줄어든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진 자료의 활용방식이 달라진데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6차에서는 사진 자료들을 학습내용 이해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었던데 비하여, 7차에서는 학습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적실성 있는 사진을 선별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중복과 혼란을 막고 수업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 자료로서 지도는 위치, 방향, 거리 등의 기초적인 공간 개념과 분포 개념, 그리고 변천 개념 등을 길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리적 사실에 대한 이해는 지도와 병행하여 시각적으로 이루어질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도 학습의 구체적인 도구는 곧 지도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지도는 핵심적인 것들만 선별한 약도로서 그 종류는 지형도, 행정구역도, 관광안내도, 산업도 등이 있으며 사회과 부도와는 또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제6차에서는 모두 16개이던 지도의 수가 7차에서는 12개로 감소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리 영역의 전반적인 분량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차에서는 비록 지도의 수는 줄었으나 교과서에 백지도를 많이 수록해줌으로써 아동들의 지리도해력(geographicacy)를 신장시켜주고, 고지도를 제시해 줌으로써 지도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로 된 통계 자료를 도표화하고, 이미 만들어진 도표를 읽고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초등학교 사회과의 중요한 기능적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지리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데는 물산, 자원, 유통, 인구 등의 분포와 변천을 비교·설명하는데 수량화된 도표가 가장 적절한 학습 자료가 된다. 제6차에서는 모두 18개의 도표가 제시되었으나 7차에서는 10개가 제시되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지리 영역 전반의 분량 감소와 관련이 있겠지만 학습 자료로서의 도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비록 수적인 면에서는 줄었지만 도표 제시 방식이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삽화 자료(sketch)는 지도와 그래프를 제외한 모든 그림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약화, 만화, 그리고 사실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삽화 자료는 아동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친근감을 통해 필요한 사실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사진 자료와 함께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습 자료이다. 제6차와 7차 교과서를 비교해볼 때, 여타 학습자료와는 달리 삽화는 증가하였다. 6차에서는 모두 11개의 삽화가 사용되었으나 7차에서는 13개로 증가한 것이다. 삽화 중에서도 특히 만화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영상 매체, 시각매체에 익숙한 아동들이 보다 쉽고 흥미 있게 교과서 내용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로 보인다.

V. 새로운 지역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언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역교과서의 내용과 구성 체계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지역교과서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영역별 내용 비중의 조화와 균형

현행 제7차 지역교과서에서는 6차에 비해 '인간과 사회' 영역의 내용 비중은 대폭 증가된 반면 '인간과 공간' 및 '인간과 시간' 영역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인간과 시간' 영역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이는 사회과를 구성하는 3개 영역간 내용 비중의 균형을 지향하도록 명시한 교육과정 상의 사회과 성격 진술 면에서나 지역교과서 개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구성이라 보기 어렵다. 차후 교육과정 개편시에는 이 점에 유의하여 3개 영역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활용가능성 높은 학습자료 제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제주도의 자연환경 단원에서 교과서 맨 앞쪽에 다양한 지도나 사진, 그림 자료 등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지리용어들도 그림 지도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주 관련 학습 자료들을 좀더 엄선하여 제시하는 것도 지역교과서의 개발 취지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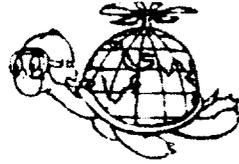
3. 지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 개발

지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지(workbooks) 개발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지리 영역은 특히 도해력(graphicacy)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육 목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습지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 본 자기 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방의 모습을 지도로 그려보게 하는 학습지 내용이다. 이와같은 학습지 활용을 통해 아동은 자기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장소에서 위치와 방향의 개념을 익히게 되며 지도를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학습지 활용을 통해 아동의 지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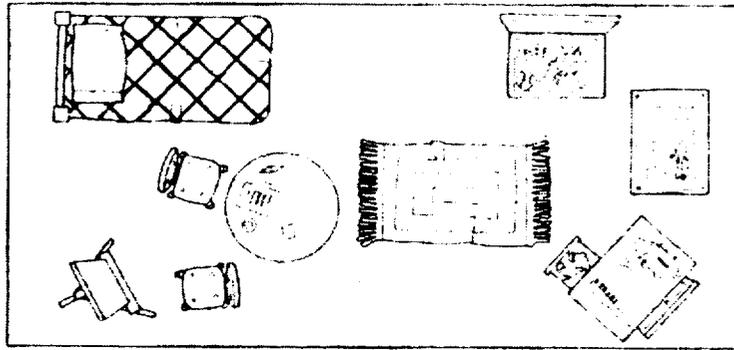
이름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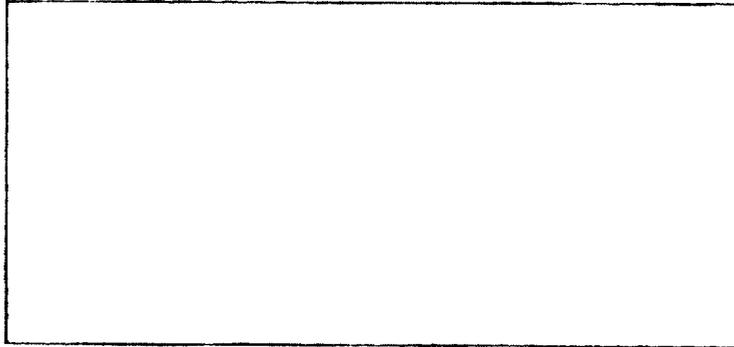
지도를 그려 보자



이 그림은 침실을 위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형태와 색깔을 사용하여 침실 지도를 그려보자



<그림 3> 자기 방 지도 그리기

* 출전: Harcourt Brace Social Studies(2002). A Child Place -Activity Book, p.3.

4.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탐구 문제 제시

지역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문제는 해당 지역에 대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아래 탐구 문제는 연구자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사례로 작성해본 것이다.

탐구문제 예시

- 활동 1: 여러분이 가 본 제주도 내 여러 장소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곳을 하나 추천해 보세요.
- 활동 2: 왜 당신은 그 곳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까?
- 활동 3: 육지나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당신이 추천하는 장소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 활동 4: 여러분은 지금 지역개발위원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앞에서 당신이 추천한 장소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을 친구에게 말해 보세요.

앞에 제시한 예시처럼 탐구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수행하도록 구성하고 국어나 미술 과목 등과 통합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조직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3학년 지역화 교과서와의 연계성

본 연구에서는 4학년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4학년 지역교과서는 3학년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다 소단위 지역에 대한 지역교과서와 상호 유기적인 연계하에서 개발되고 학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3학년은 시·군·구 단위의 고장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교과서가 개발되고 있으나 4학년 과정의 시·도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교과서와 내용상에 중복이 생기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생략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교과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호 역할 분담과 특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VI. 요약 및 결론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교육과정 결정의 지역화는 기본적으로 중앙이 가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역에 이관함으로써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 결정의 지역화 취지는 강화되고 있는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을 구성 방침으로 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교과서의 개발 배경이 된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리를 검토하고, 초등사회과의 지역화 교재 중 <사회과 탐구> 『아름다운 제주도』(4-1)의 구성 체계와

지리 내용 요소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역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려 하였다.

앞에서 논의, 분석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지역화'란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결정 권한을 지역, 즉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혹은 학교 현장이 가진다는 적극적 의미의 지역화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는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라는 소극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와 유사한 의미로 '지역화'라는 개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중앙집중형 교육과정 개발체제하에서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상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지역사회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7차 교육과정은 6차에 비해 '인간과 사회' 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반면 '인간과 공간' 및 '인간과 시간' 영역의 비중은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 사회과 내용 체계에서 '인간과 사회' 영역의 대주제 수가 다른 두 영역에 비해 4배나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영역에 내용이 편중된 지역교과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지역교과서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고, 지역의 특성은 곧 시간적, 장소적 맥락을 통해 살펴볼 때 그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 교육과정 개편시에는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및 '인간과 사회'라는 3영역이 내용 비중 면에서 균형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분석기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행 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자연환경과 분석기법 내용들은 증가한 반면 인문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폭 감소하였다. 인문환경 내용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마도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차 교육과정 시기에 와서 지리 영역 전체적으로 내용 비중이 감소한 것 못지 않게 지리 영역 내에서도 인문지리 분야가 크게 감소한 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리는 수업시간을 통해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두루 균형 있게 다룰 때 지리교육의 목표로 상징되는 지리적 안목과 지리적 상상력을 제대로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향후 새로운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사회과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3개 영역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수업시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들이 많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지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탐구문제는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가능하면 범교과적 통합을 지향하며 학생 스스로 지적 흥미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지역교과서 내용간 유기적 연계성을 담보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특정 시기(제6차 및 7차 교육과정 시기), 특정 지역교과서(「아름다운 제주도」)만을 대상으로 지리 영역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제주도 이외의 여타 시·도에
서 개발한 지역교과서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보다 논의를 확장시키고 일반화의 가능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의미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고신태(1998), 「사회과 탐구」의 구성체계와 내용 분석 -15개 시·도의 4학년 1학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용찬(1998), 사회과 지역화 교육과정의 수업목표 분석 -전국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7),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 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 교육부(1999), 「사회과 탐구 4-1 아름다운 제주도」,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200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4-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혁풍(1995), 지역화 논리에 따른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만곤(1986), 대구 지역의 사회과 교육 지역화 방안, 「사회과교육」, 제19호, 한국사회과교육회.
- 김용국(1994), 농촌 지역 국민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만(1986),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법, 「사회과교육」, 제19호, 한국 사회과교육회.
- 김은석·정광중(1997),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교과서상의 사진자료에 대한 연구: '아름다운 제주도'를 사례로, 「초등사회과교육」, 제9집, 제주교육대학교.
- 김재광(1995), 국민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에 관한 연구 -4학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항원(1986), 제주 지역의 사회과 교육 지역화 방안, 「사회과교육」, 제19호, 한국사회과교육회.
- 김항원(1997), 교과 교육의 지역화 논리, 「교육제주」, 제97호, 제주도교육청.
- 남상준(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 양보현(1999), 사회과 지역 교과서의 개발 연구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아름다운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배(1998),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 교과서 내용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한(1997),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 단원의 재구성 과 수업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정옥(1988),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동환(1996),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광중(1997), 초등학교 지역교과서의 각종 자료에 대한 분석, 「논문집」, 제26집, 제주교육대학교.
- 제주도교육청(2001), 「사회과 탐구 4-1 아름다운 제주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최덕기(1998).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육의 지역화에 관한 연구: 경기도 연천군을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용원(1997).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방안 -충북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eter Haggett(1983). 「GEOGRAPHY: A Modern Synthesis」, Harper & Row: New York.